

찰스 3세의 와인 ‘로얄 컬렉션 코로네이션’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로얄 컬렉션 코로네이션 2023. /하이그로브 가든

영국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대관식을 마치고 버킹엄 궁전으로 돌아오면서 4톤 짜리 ‘골든 스테이트 코치’, 쉽게 말해 황금마차를 탔다.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도 치뤘던 이 황금마차는 무려 260년이나 된 골동품이다.

찰스 3세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황금마차 뿐만이 아니었다. 와인이다. 7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크로아티아 트라미나츠 와인(Traminac Hrvatsko Podunavlje Premium)이 다시 와인 리스트에 올라왔다.

트라미나츠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 게비르르츠트라미너를 말한다. 크로아티아에선 1700년대부터 생산돼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생산된 빈티지는 달랐다. 엘리자베스 2세 때는 1947년, 이번 찰스 3세는 2019년 빈티지다. 크로아티아 동쪽 끝에 위치한 유서깊은 와이너리 일로크 셀러의

와인들이다. 당시 20대의 젊은 엘리자베스는 일로크의 와인을 마음에 들어했고, 와이너리는 그녀의 대관식을 위해 1947년 빈티지로는 거의 전량에 가까웠던 트라미나츠 와인 900상자 가량을 영국 왕실로 보냈다. 빈티지 1947년은 엘리자베스가 필립공과 결혼한 해다. 일로크는 찰스 3세 부부가

지난 2016년 크로아티아를 방문했을 때 몇 병 안남은 1947년 빈티지 중 하나를 선물하기도 했다.

사실 일로크는 왕실에선 꾸준히 선호해 온 와인이기도 하다. 2011년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결혼식에서는 일로크의 트라미나츠 아이스 와인을, 2018년 해리 왕자 결혼식에는 일로크의 스위트 와인이 쓰였다.

크로아티아산 트라미나츠 와인을 접하기 힘들다면 수많은 대중을 위한 와인도 물론 준비됐다. 브리티시 피즈(British Fizz), 즉 영국산 스파클링 와인이다.

영국 와인이라면 고개를 가우뚱 거리겠지만 영국 스파클링 와인이라면 마음을 좀 놓아도 된다. 전 세계에서 샴페인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영국은 일찍부터 그 가치를 알아챘고, 영국은 이제 소비국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과 같은 백악질 토양과 차갑고 서늘한 기후도 영국 스파클링 와인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 몫을 했다.

대관식 공식 빈티지 스파클링 와인은 하이그로브 가든(Highgrove Gardens)이 내놓은 ‘로얄 컬렉션 코로네이션(The Royal Collection Coronation) 2023’이다. 가격은 45파운드(한화 약 7만5000원)다.

영국 스파클링의 고전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라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피노피니에의 블렌딩이다. 샤르도네가 구조적으로 탄탄히 잡아줬다면 피노누아는 무게감과 깊이를 더해줬고, 마지막으로 피노피니에는 와인에 우아한 꽃과 과일의 향을 입혔다. 어울리는 음식은 생선과 함께 가벼운 고기 요리, 치즈 등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잠깐, 지금이 2023년 5월인데 와인이 2023년 빈티지다.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을 기념하려고 만드는 건데 2022년 빈티지를 새겨넣을 순 없었을까. 그렇다고 2023년 빈티지를 하려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대관식 담당자들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smahnl@metroseoul.co.kr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한 왕실 지지자가 대관식을 기다리며 와인을 마시고 있다. /AP·뉴스시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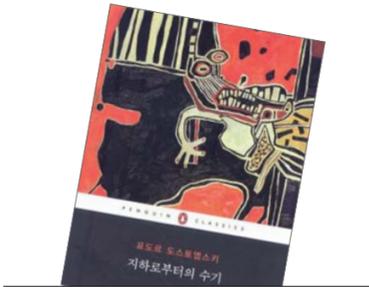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지하로부터의 수기’에는 의식의 지하 세계에 사는 냉소적이고 고립된 한 인간, ‘지하인’이 두서없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설 속 주인공은 ‘인간이 문명 때문에 온순해졌고 피에 덜 굶주리게 됐으며 전쟁을 덜 하게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다.

인간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들리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주위에 삼페인처럼 기분 좋게 흘러넘치는 피의 강물이 그 증거라는 것.

그는 오늘날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 영원한 연방인 북아메리카, 우스운 캐리커처인 슬레스비히 홀스타인을 예로 들며 문명이 대체 무엇을 평화롭게 해주었냐고 묻는다. 문명은 인간의 내면에 감각의 다양성만을 발달시켰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인공은 한탄한다.

지하인이 본 인간은 다양성의 발전 뒤에서 천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가장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들이 가장 문명화된 자들이라고 주인공은 비판한다. 과거에 인간은 피 흘리는 것 속에서 정의를 발견했고 자신이 처벌해야만 하는 이들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처벌했다. 오늘날의 인간은 이와 다를까. 주인공은 지금의 우리는 피 흘리는 것을 혐오



지하로부터의 수기

표도로 도스토예프스키 지음/조혜경 옮김/뎡권클래스코리아

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는 황금 바늘로 자기 몸종들의 가슴을 찌르고 그들의 비명과 몸부림 속에서 쾌락을 찾는 걸 즐겼다고 한다. 주인공은 기원전 야만적인 시대에서나 벌어졌을 법한 일들이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지금도 핀으로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현대의 인간은 야만적인 시대보다 더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배우게 됐지만, 이성과 학문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터득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한다.

212쪽. 9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답페이크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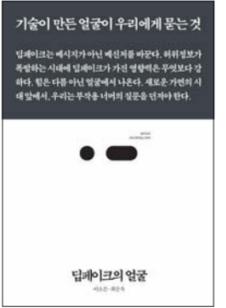
이소은, 최순욱 지음/스리체어스(threechairs)

AI 시대의 이미지는 얼굴의 모양과 위상, 색과 출신을 묻는다. 이 질문에서 얼굴에 담긴 진실과 거짓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눈과 머리가 싸우는데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기술이 그렇듯 답페이크 역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 답페이크를 통해 노베

우의 젊은 시절 연기를 볼 수 있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새로운 시도를 경험할 수 있다. 허나 답페이크는 가짜 뉴스 확산,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어두운 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책은 답페이크 기술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152쪽. 1만2000원.



친밀한 감시자

탕페이링 지음/서지우 옮김/유유

보호관찰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책의 저자는 타이완의 보호관찰관 탕페이링이다. 책은 독자들에게 ‘가해자가 저지른 죄와 동일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

이 형벌의 목적인지’, ‘강력한 처벌을 하면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법은 어디까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지’ 등을 묻는다. 저자는 시민을 지키고 범죄를 바로 잡는 건 결국 법이 아닌 ‘사람’이란 사실을 일깨운다.

290쪽. 1만7000원.



랜선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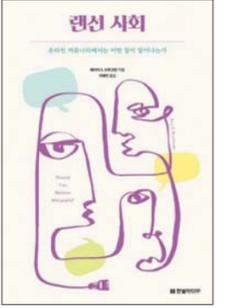
에이미 S. 브루크먼 지음/석해미 옮김/한빛미디어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온라인 협업의 좋은 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온정 넘치는 공간이 있는 반면, 차

별적이고 혐오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싸움터 또한 존재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고, 사이트의 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편향과 폭력의 실태를 파헤친다.

256쪽. 1만8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엘시티 부실수사” 前기자, 배상 판결…한동훈 “선례 남겨야”
- ▲ 전공의들 “간호사엔 ‘간호인권법’ 필요…간호법은 안돼”



- ▲ ‘SG발 추가폭락’ 라덕연 측근들, 12일 구속심사 /사진 뉴스시
- ▲ 검찰 ‘박영수 대장동 로비 의혹’ 前우 리은행 부행장 소환



- ▲ 건설노조 “16~17일 총파업 상경투쟁…명예 회복” /사진 뉴스시
- ▲ ‘엔데믹’에도 PCR 검사 당분간 무료…치료비 지원 그대로